

번호: OP-A-001					
제 목	대사증후군의 선별검사도구로서 체질량지수(BMI)의 의미 BMI(Body Mass Index) as a Screening test tool of Metabolic Syndrome: from CMS(Chungjoo Metabolic Syndrome) Study				
저 자 및 소 속	박영준1), 박용문1), 권혁상2), 임선영1), 임동준2), 윤건호2), 이원철1), 손호영2), 노재홍3), 장영랑3), 안명숙3), 김동석3) 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내분비내과, 3) 충주시 보건소 Young Jun Park1), Yong Moon Park1), Hyuk Sang Kwon2), Dong Jun Lim2), Sun Young Lim1), Kun Ho Yoon2), Won Chul Lee1), Ho Young Son2), Jae Hong No3), Myung Sook Ahn3), Dong Suk Kim3)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2)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3) Chungjoo Public Health Center				
분 야	역 학 [대사증후군]	발 표 자	박영준 전공의	발 표 형 식	구 연
<p>목적: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에는 허리둘레, 혈압 뿐만아니라 혈당,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등 침습적이면서도 적지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검사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간편하게 비만도를 파악하는 체질량지수(BMI)가 대사증후군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사증후군의 선별검사도구로서 체질량지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p> <p>방법: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충주시 읍면 지역의 40세 이상 성인, 총 8,395명 (남자:3436명, 여자:49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사증후군의 진단은 Modified NCEP- ATP III(허리둘레: 남>90cm, 여>80cm) 기준을 이용하였다.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도는 아시아-태평양 비만치료지침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체질량지수를 ≥ 23, ≥ 25, ≥ 27, ≥ 30의 구간으로 나누어 대사증후군 진단의 양성예측도와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대사증후군 진단을 위한 체질량지수의 민감도 특이도를 ROC 분석을 통해 확인 하였다.</p> <p>결과: 연구 집단의 연령보정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35.0%(95% CI 33.1-36.8)이었고, 남,녀 모두 BMI가 증가함에 따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체질량지수 구간별로 대사증후군을 진단 할 수 있는 양성예측도는 ≥ 23, ≥ 25, ≥ 27, ≥ 30에서 각각 51.1%, 59.7%, 65.9%, 72.2%를 보였고 민감도는 79.1%, 55.7%, 31.0%, 8.7%를 나타냈다.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체질량지수의 임계점은 남성에서 24.1 kg/m²(민감도 67.2%, 특이도 72.7%)이었고, 여성에서 24.20 kg/m²(민감도 67.0%, 특이도 62.0%)이었다.</p> <p>결론: 체질량지수 ≥ 25를 비만 기준으로 정하여 대사증후군의 선별 도구로 이용할 때 양성예측도는 59.7%이었으나 위양성률이 40.3%이었다. 또한 대사증후군 질환자 중 44.3%는 비만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누락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만관리에 국한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대사증후군 관리라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p>					